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0월 13일(금)

윤석열 대통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 중요성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13, 금) 오전 유홍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미래 세대, 지방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지역 협회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으며, 친선협회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